

표 22. 지역적응성 시험 계통별 생육 성적 요약(원교 57031)

지역	계통명	초장 (cm)	엽수 (개)	엽초경 (mm)	추대율 (%)	2차 생장율 (%)	내병성 (0~9)	구 중 (g)	구 고 (mm)	구 경 (mm)	인편수 (개/구)	수 량 (kg/10a)
남해	원교57031	96.1	10.3	15.9	-	-	-	33.2	42.7	42.9	7.4	1,209
	남도(대비)	96.2	9.6	16.2	-	-	-	37.6	42.3	48.0	7.6	1,369
수원	원교57031	75.2	7.9	11.0	100	0	2	43.2	38.3	48.3	6.6	1,573
	의성(대비)	59.7	7.6	8.1	100	0	2	23.3	30.2	38.6	5.7	848
	단양(대비)	64.2	7.2	9.1	100	5	1	26.8	32.2	40.0	6.4	976
단양	원교57031	75	8.1	9.7	-	0	0	41.8	42	45	6.3	1,672
	단양(대비)	72	8.8	9.1	-	1.7	0	34.3	42	49	7.7	1,291
무안	원교57031	94.7	9.8	19.5	-	-	-	35.4	31.4	43.7	7.1	1,250
	남도(대비)	89.7	7.9	19.8	-	-	-	37.2	46.8	52.1	8.4	1,760
제주	원교57031	67.5	9.3	16.9	-	-	-	52.9	37.3	52.7	8.3	2,566
	남도(대비)	86.5	9.4	25.2	-	-	-	43.5	32.2	66.1	7.1	2,107

남해의 경우 계통별 생육조사 결과 초장은 원교57025호가, 엽초경은 원교57028호가 가장 컸다. 계통별 구 특성을 조사한 결과 원교57025호가 대비품종(남도)보다 인편수가 많았고, 구중이 무거워 단위면적당 수량도 높았다. 스펀지마늘 발생율은 원교57031호가 31.3%로 가장 많았고, 원교57022 및 원교57028호도 비교적 많았다. 모든 시험계통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시 되는 병해충은 없었다.

무안의 경우 시험계통 중 대비 품종의 추대기(4월 29일)로 지난해(5월 7일) 보다 1주일정도 빨랐으며, 공시계통은 원교 57022(5.9)가 빨랐으나 나머지는 모두 늦은 편이었다. 시험계통의 수확기는 원교 57022호, 원교57023호 2계통이 난지형 대비품종인 남도마늘 수확기(5월 29일)와 동일하였고 나머지 원교57024 등 5계통은 6월 2일, 원교57025등 3계통은 6월 5일 수확으로 숙기가 늦다. 마늘 생육특성은 원교57022호의 초장 100.1cm, 엽수 9.3대로 가장 양호하였다. 마늘 수량성은 공시계통 중 원교57025호 및 원교57026호는 2,962kg/10a 및 2887kg/10a로 대비종에 비하여 68~64% 증수되었다. 원교57025호와 원교57026호는 대구율이 높고, 불결구율이 극히 0~1.9%로 매우 낮아서 증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.

단양의 경우 시험계통의 출현기는 단양종, 의성종, 원교57031호가 2월 20일~2월 21일로 늦었고, 2차생장 발생 정도는 단양종, 의성종, 원교57028호, 원교57029호가 1.7~7.7로 높게 나타났다. 지상부 생육특성으로 엽초장은 원교57022호가 32.8cm로 길었고 원교57022호, 원교57025호, 원교57026호는 화경장과 화경경이 길고 굵었다. 지하부 생육특성 중 인편수는 원교57028호에서 3.5개로 특히 적었고 화경제거 시 구중은 원교57025호, 원교57026호, 원교57031호에서 36.8~41.8g으로 컸다. 10a당 수량은 화경제거 시 원교57025호, 원교57026호, 원교57031호에서 높아 단양종 1,291kg 보다 14%, 15%, 30% 각각 높게 나타났다.

수원의 경우 원교57022와 원교57031이 수량성에서 월등하였다. 원교57030에서는 스펀지 마